

미투·갑질... 불편함을 꺼내 든 출판계

을 상반기 어떤 책이 사랑받았나 '82년생 김지영' 고정팬 확보 '나답게 살기' '대화법' 소재 베스트셀러 女 독자층 두터워



페미니즘 열풍의 중심에 선 '82년생 김지영' 이 올 상반기에도 독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해의 '페미니즘' 열기가 올 초 '미투'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도서와 여성 작가의 작품이 독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내에 고정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 유명 작가들의 신작도 여전히 인기를 끌었다. 서사적 재미와 나름의 스타일을 갖춘 책들이 어필하고 있다는 의 미다.

◇페미니즘, 대화법 관련 도서 열풍

'인터파크도서 상반기 문학 트렌드'에 따르면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이 상반기 소설 부문 1위에 올랐다. 송현주 문학 MD는 "우리나라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소설을 꼽으라면 단연코 '82년생 김지영' 이다. 조남주의 글은 쉽게 읽히지만 편하지는 않다"며 "보여주기 싫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민낯을 마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세이 부문에서는 정문정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독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1월 출간된 이 책은 발간 즉시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지금까지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일상 속 무례한 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과 '82년생 김지영' 은 '교보문고 2018 상반기 종합베스트셀러' 에서도 각각 1위, 2

위를 차지했다. 모든 감정과 모든 관계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목소리 '모든 순간이 너였다' (하태완)도 3위를 차지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 상반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과 맞닿아 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과 맞물려 여성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이 넘쳐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재벌가의 갑질 행각도 여론을 들끓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이상은 참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사회적 시선이나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화/화술 분야 도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2.9배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기욤 뫼소, 히가시노 게이고, 김진명 등 유명 작가들의 귀환으로 문학 시장에 활

기를 더했다. 출간하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로 등극시키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기욤 뫼소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팬을 거느리고 있다.

인터파크 자료에 따르면 기욤 뫼소의 신작 '파리의 아파트'는 소설 부문 5위를 차지했는데, 여성 독자의 비중이 59%로 남성(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독자들이 좋아하는 일본 소설가로 꼽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연애의 행방'은 각각 2위와 4위에 올랐다. 김진명의 '미중전쟁' (2권)도 6위, 7위에 뽑혔다.

양단비 문학MD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군더더기 없는 서사와 속도감 있게 흘러가는 전개가 무겁지 않으면서 재미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과 '연애의 행방'은 교보문고 자료에도 각각 종합 8위와 10위에 올라 이름값을 증명했다.

◇힐링 에세이 상위권에 랭크

올 상반기에는 힐링 에세이가 큰 주목을 받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는 에세이 분야의 특성상 명상, 치유 관련 도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판매가 됐다.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린 도서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자기계발, 자기 치유적인 책들이 대다수 차지했다.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와 곰돌이 푸의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곰돌이 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가 상위권에 랭크됐다.

인터파크 도서 관계자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율로 열풍과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소확행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눈 앞에 보이는 확실한 행복을 위해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사람과 가족, 사회 등 모든 관계와의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셀러는 '여심'이 쥐고 있다
교보문고의 올 상반기 종합 10위까지의 도서를 살펴보면 여성 독자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위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과 2위 '82년생 김지영' 의 여성 독자 비율이 각각 78.7%, 78.1%를 기록했다. 3위 '모든 순간이 너였다' (68.2%), 4위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77.9%), 5위 '언어의 온도' (66.9)도 여성 독자의 구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외의 10위 권 도서들 또한 모두 여성 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출판 시장의 주요 고객인 여성의 마음을 얻는 도서들이 상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황석영 '해질 무렵' 佛 '에밀 기메 20문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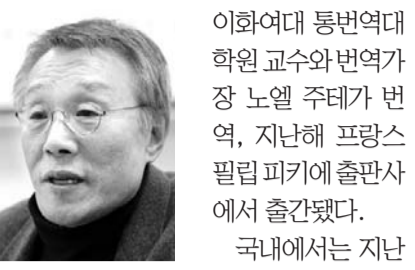
황석영(사진) 작가가 프랑스에서 수여하는 '2018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장편 '해질 무렵'.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 기메 미술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알려졌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은 아시아 문학을 프랑스에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처음 제정됐으며 파리 소재 국립동양미술관인 기메박물관에서 수여한다.

수상작은 1년간 프랑스어로 출간된 아시아 작품 가운데 선정한다. 작년에는 영국계 인도작가 레이나 다스굽타가 수상했다. 올해는 인도의 미나 칸다사미, 일본의 나시키 가호, 중국의 아이 등이 최종후보에 올라 황석영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질 무렵'은 2016년 대산문화재단의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을 받아 최미경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와 번역가 장 노엘 주테가 번역, 지난해 프랑스 필립 피기에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출간됐으며 성공한 60대 건축가와 젊은 연극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른다.

기메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황석영의 작품이 주는 강력한 활기, 묘사의 섬세함, 독자로 인해 얻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풍요로움에 매료됐다"고 평했다.

한편 황석영은 지난 2004년 '손님'으로 프랑스에서 페미니즘 외국어소설 부문 후보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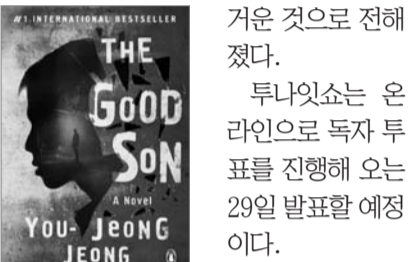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종의 기원' 美 NBC '올 여름 읽을 책' 후보

정유정의 장편 '종의 기원' 영문판(사진)이 미국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NBC '지미 팰런 투나잇쇼'에서 '올 여름 읽을 책' 후보 5권 중 하나로 소개됐다.

'투나잇쇼'는 미국 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22일(현지시간) 방송에서 '올 여름 읽을 책' 후보 5권을 소개했다. 미국 작가의 작품이 아닌 외국 작품으로는 '종의 기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종의 기원'은 지난 5일 미국 최대 출판그룹인 펄컨북스에서 '더 굿 선'(The Good Son)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다. 미국에서 공식 출간 전에 사전 주문만으로 초판이 모두 팔려나가는 등 반응이 뜨



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투나잇쇼는 온라인으로 독자 투표를 진행해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는 현지시간으로 28일 자정까지 이뤄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www.nbc.com/the-tonight-show/exclusives/summer-reads/video/3750197#vote)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유럽서도 사랑받은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상영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6월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유니버설발레단 '지젤'을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상영한다.

이번 상영작은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지난 2014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무대에 올린 낭만발레의 명작 '지젤'을 영상화했다.

낭만 발레의 정수로 꼽히는 '지젤'은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비평가였던 테오필 고티에가 '월리'에 관한 작품을 읽고 영감을 받아 쓰게 된 작품으로 1841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1막에서 순박하고 명랑한 시골 소녀에서 사랑의 배신에 몸부림치며 광란의 여인이 되는 지젤의 모습을, 2막에서 죽음을 뛰어넘은 애뜻하고 숭고한 사랑을 보여준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았다. 1999년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2000년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그리스, 헝가리에서 공연하며 유럽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발레단으로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았다.

한편 7월(12일) 상영작은 '백건우 피아노리사이틀'이다. 입장료 무료(선착순 100명). 전화예약 062-670-7931, 7세 이상 관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설이 있는 합창' 내일 광주문예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한 '2018 문화가 있는 날 예술여행 더하기' 행사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강은숙

'해설이 있는 합창, 행복한 음악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여수시민회관(7월27일)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8월31일)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이준 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립합창단이 참여하며 신디사이저 강은숙, 베이스 기타 김성광, 드럼 김민호 등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해설은 광주문예회관의 기획 공연 '11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이곤씨가 맡는다.

공연 레퍼토리는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이태리가곡 '오! 나의 태양', J. 스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흐리는 눈물', 들리브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2



광주시립합창단

중창 '박연폭포', '자진방아 타령', '아리랑', '농부가' 등이다. 전석 무료. 문의 062-613-835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